

한국이 맺어준 일본인과 아프리카인의 사랑

アヘゴ 希佳子 (栃木県)

흔히 한일교류라고 하면 한국인과 일본인 간의 교류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일교류를 보다 넓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3 년전에 한국에서 유학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아무리 바빠도 한국어를 잊지 않도록 항상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국어를 잊어버리면 그때의 소중한 기억들도 하나하나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노력을 해온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3 년전에 우연한 계기로 한 아프리카 남자를 만났습니다. 토고 출신인 그는 한국에서 5 년동안 유학을 했었다고 해서 한국어로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양인도 아닌 외국인이 저보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모습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의 일본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어느 곳에 있던지 둘만의 세상에 있는 것 같은 특별한 느낌이 들게 되었고, 이로 인해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빨리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과 토고의 국적을 가진 두 사람이 한국어로 교류하는 신기한 우연이 시작되었고, 어느새 저희 둘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제한지 3 개월이 되었을 때 제가 프랑스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로 가면 그와의 소중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될까 봐 슬픈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실은 나에게 한국 생활은 쉽지 않았어. 한국에서 한글을 기초부터 열심히 배우고 5년동안 힘든 상황도 마주하며 땀 흘리면서 살았지. 이런 세월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심한 적도 있었어. 그런데 이제 알겠어. 널 만나기 위해서였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때야 비로소 '아무리 바빠도 한국어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어쩌면 인생의 반쪽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2 년간의 프랑스 체류에도 저희는 한국어를 통해 매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된 지금도 한국어는 저희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언어입니다.

이처럼 제가 생각하는 한일교류는 한국인과 일본인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한국을 아는 사람과 일본을 아는 사람, 즉, 한국과 일본을 통한 모든 사람들의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선물해 준 소중한 행복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그와 같이 인생을 즐기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느낀 한국

柿本 茂 (東京都)

옷의 염료 기술자였던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족과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분이셨다.

그런 아버지가 60 세이셨을 때, 그 동안 다녔던 회사를 퇴직하신 후 다시 들어간 회사가, 한국의 중소기업이었다. 기술 고문으로써 일을 하게 되셔서 한국으로 가시게 된 아버지를 가족들은 걱정하였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오신 아버지께서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한국땅에서 잘 적응해 가실지 상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한국으로 가시고 시간이 흘러 내가 25 살 때, 나는 아버지를 뵈러 갔다. 그때 나를 따뜻하게 맞아 준 것은, 아버지가 일하고 계셨던 공장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었다. 우리 가족들이 생각했던 대로 아버지는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 하셨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의 통역을 도와주셨던 분이 있었다. 바로, 박과장이라는 분이였다. 박과장님은 물론, 부인께서도 일본식 식사를 만들어주시는 등 아버지가 한국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계셨던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왜인지 부끄러워졌고, 박과장님과 부인께 아버지를 대신하여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하지만, 박과장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문님께서 제가 과장을 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아버지는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박과장님을 추천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과장님은 아버지를 자신의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왜일까.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박과장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시간이 더 흘러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이지만, 박과장님에게는 꿈이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재벌기업의 사원에게 뒤지지 않는 시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하셨다. 재벌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격차가 큰 한국에서, 자신은 아버지에게 일본의 기술을 배워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느낀 정(情)은 반드시 갚으려고 한다”고 이야기하셨다.

그렇다. 언어가 달라 말은 통하지 않을지라도, 많은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情)’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25 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의 위패 옆에는 지금도 고문으로 일했던 한국 회사에서 보내온 ‘감사장’이 자랑스럽게 걸려있다.

내가 느낀 한국

二階堂 いさ子 (宮城県)

벌써 60 년 이상이 되었지만 지금도 뚜렷이 내 기억에 깊게 남아 있는 게 있다. 그건 초등학교 4 학년 때였다. 가쓰코 씨라고 동급생이 있어 항상 근처의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다.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새색시를 보러 가자고 말을 걸었다. 친구와 같이 가면 거기는 단층집의 지붕이 겹겹이 서 있는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친구 집도 그 중에 있었다. 집들 안에서 젊은 여성의 가냘픈 노랫소리가 들려 왔다. 그 노랫소리가 나는 집의 창문으로 방안을 들여다보더니 "와, 예쁘다!"라고 엉겁결에 목소리가 나왔을 정도로 화려한 분홍색 신부 의상을 입은 예쁜 새색시가 눈에 띄었다. 그리고 앉아 있는 새색시 주위만 밝게 행복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 처음 보는 외국의 새색시에게 나는 꿈꾸는 듯한 기분으로 넋없이 바라보았다.

얼핏 친구의 얼굴을 보았더니 언젠가 친구도 이처럼 예쁜 신부 의상을 입고 어딘가 멀리 시집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갑자기 슬픈 생각이 들던 걸 기억하고 있다. 그 시절은 나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먼 미지의 나라였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제야 한국과는 많은 상호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어 가깝고 친근감 깊은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 마음에 새긴 새색시에게의 동경을 안고 비행기로 한국에 여행을 떠났다. 서울은 상상했던 대로 역사적인 것과 새로운 것이 좋은 조화를 이룬 대도시였다. 그러나 두 번째 한국 여행은 꼭 바다를 건너 가고 싶다는 강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경주에는 하카타에서 고속선으로 부산에 건너기로 했다. 옛날부터 일의 대수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왕래, 그리고 많은 생각, 나는 가슴에 뭔가 무거운 걸 느끼면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바다는 희비가 엇갈리는 역사도 무슨 일도 없는 것처럼 그저 밝게 어디까지나 평온하게 펼쳐져 있었다. 어느새 나는 한 사람의 여행자로 쾌적한 배 여행을 만끽하고 있다. 선내는 일상적에 교통 수단으로 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어 큐슈와 한국이 정말 가까운 걸 실감했던 여행이었다.

나에게 한국은 소꿉친구인 가쓰코씨나 그 새색시 고향이고 일본에서 살고 있어서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일 한국인들 고향이다. 동시에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다. 당연히 일본과는 역사도 생각도 다르지만 계속 가깝게 지내고 싶은 나라다. 나는 지금 이웃 나라에 대한 더 이해를 깊게 하고 싶어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호돌이가 맺어준 인연

小野寺 悠 (青森県)

초등학생 때부터 아껴 쓰는 책받침이 있다. 그것은 서울올림픽 개최 기념품인 호돌이 책받침이다. 가끔 TV에서 서울올림픽 장면이 나오면 호돌이가 생각나서 언젠가는 꼭 호돌이 인형을 손에 넣고 싶었다.

2014년 12월 나는 콘서트를 보러 잠실종합운동장을 찾았다. 공연장까지 걸어가고 있을 때 "올림픽 기념품 판매장"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창문 너머로 서 있는 큰 호돌이 인형이 보였지만 오래 전에 문을 닫은 듯한 느낌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단념할 수 밖에 없었다.

이듬해 재차 콘서트 때문에 한국에 간 나는 공연장에 가기 전에 일부러 종합운동장을 들렀다. 작년에 발견한 그 기념품 판매장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가게는 작년 그대로였고, 그냥 사진만 찍고 돌아가려는데 그 옆에 서울올림픽 전시관이라는 건물이 보였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나는 모처럼 온 김에 서울올림픽에 관한 자료만이라도 보고 싶어져서, 주변 가게들을 돌아다니면서 수소문을 해 봤다. 그러나 그 전시관이 아직 운영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돌아가려던 참에 마지막으로 경비원 분께 여쭙았는데 그 분께서 전시관에 직접 전화를 하시더니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 조금전 내가 갔을 때는 마침 점심시간이었던 것이다.

나는 들뜬 마음으로 전시관으로 향했다. 전시관에는 아까 전화를 받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일본에서 온 호돌이 팬이고 작년에도 왔다가 포기하고 다시 찾아온 거라고 설명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놀랍게도 그 기념품 판매장 사장님에게 대신 전화를 해주신 것이었다. 나중에 사장님이 여기로 오실 테니까 전시물을 구경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셨다. 생각치도 못한 일에 나는 흥분했다. 관람을 마칠 때쯤 이미 입구에는 그 사장님이 와 계셨다. 나를 가게로 안내해 주고선 마음껏 구경하라고 하셨다. 나는 마치 장난감을 사러 온 어린 아이처럼 환성을 지르면서 가게를 헤집고 돌아다녔다. 그리고 결국 그토록 갖고 싶었던 호돌이 인형을 손에 넣고야 말았다.

설마 한국에서 그런 대접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직원 분은 일본에서 일부러 방문해줘서 고맙다며 방명록에 일본어로 한마디 적어달라고 하셔서 나는 "정말로 오기 잘했다"라고 썼다. 그 이후에도 인연은 계속 이어졌고 그 직원 분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나를 멀리서나마 늘 격려해 주신다. 호돌이가 맺어준 따뜻하고 소중한 인연인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한일교류

川村 文 (東京都)

내가 한지공예를 시작한 지 벌써 2 년이 되었다. 지금은 완전히 한지공예 세계에 빠져 있다. 한지는 일본 '와시' 와 같이 물 안에서 틀을 좌우로 흔들면서 뜬 종이인데 독특한 풍취가 있다. 한지공예는 그 한지를 써서 상자나 접시 등 생활용품을 만드는 공예이다. 한국 사극 드라마를 보면 양반 여자의 방에 놓인 예쁜 보석함이나 경대가 바로 그것이다.

나는 한글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학 공부하기에 따라서 한국 문화에도 흥미가 생겼다. 그때 한일 교류 행사에서 한지공예 체험을 해봤더니 아주 즐거워서 여러가지 더 만들고 싶어졌다.

한지공예의 매력이 뭐냐면, 먼저 특별한 재료나 도구가 없어도 종지와 풀만 있으면 다양한 모양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또 한지공예는 예술작품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일용품이라는 것도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선명하고 다채로운 색깔의 종이를 써서 자기만의 색상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점이다. 보라색, 물색, 연두색, 분홍색, 파란색...

그로 인해 똑같은 모양의 골격을 써도 친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빚어낸 것이 완성된다. 그 신기함, 심오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또 한국 사람이 만든 작품은 한국다운 화려한 색깔이 많고, 한편 일본인인 내가 만든 것은 역시 일본적인 수수한 색깔이다. 그것이 굉장히 재미있고 멋이 있다고 느껴진다.

한일 교류는 이렇게 가까운 것을 통해서 서로의 맛이 융합하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가 한국, 대만, 일본 사람을 섞어서 신선한 노래와 춤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자극을 주고 받으면 대단한 문화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한국과 일본의 가교가 되고 싶다는 것 같은 큰 꿈을 품지 않는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꼭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것이 아주 많으니까 먼저 문화적인 교류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본 친구에게 내가 만든 한지공예를 선물할 때 한지공예가 뭇인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설명해 주거나, 한국에서 개최될 전시회에 내 작품은 내는 것도 한국과 일본이 다가오는 작은 한 걸음이 될 거라고 믿는다.

앞으로도 이 취미활동을 통해 자기 나름대로 한일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한일교류

沼波 裕美 (大阪府)

"한일교류"라고 하면 직접 대화 등을 통해서 교류를 한다는 장면을 먼저 떠올립니다. 한국에 간 적도 없고 그냥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저에게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드라마를 보거나 일본에 오는 K-POP 가수 콘서트에 갈 정도로 "교류"는 한 적이 없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어쩌면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이 있었어요.

어느 배우님의 이벤트가 있어서 참가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국어를 통역해 준 이야기를 들을 뿐이었는데 제가 생각한 "한일교류"와 달랐습니다. 마지막에 배우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한국어로 "이야기 재미있었어요"라고 하니깐 배우님은 일본어로 "오모시로갓타데스카?" 라고 했어요. 상대의 나라 말로 대화를 나눠서 "이것이야말로 한일교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배우님에 제 마음을 직접 전하고 싶어서 한국어로 말하고 배우님은 일본인인 저에게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일본어로 말해서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생각해서 모국어가 아닌 말로 말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멋진 체험이었습니다. 그때 "이것이야말로 한일교류다"라고 확실히 느꼈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그것도 조금 다른지도 모른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벤트가 끝나고 친구와 같이 "오늘은 하루 종일 한국 체험을 하자" 라고 해서 저녁은 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름은 "이열치열"이라서 삼계탕을 먹어야지 라고 해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먹었습니다. 배우님은 저녁은 일본 요리를 우리와 같이 "이열치열"의 의미를 담고 일본식 장어를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는 생각이 납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만나서 직접적인 교류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일본인이 한국식의 삼계탕을 먹고 한국인이 일본식 장어를 먹을지도 모르는 사실. 이제 이것만으로도 "한일교류"라고 할 수 있겠죠? 일본인과 한국인이 각각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것, 그 나라를 알고 싶은 것, 그것만으로 직접 관계가 없어도 충분히 "한일교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간 적도 없고 한국인 친구도 없는 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일교류"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며 더 한국이 좋아져서 더 알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일본에서 제가 생각하는 "한일교류"를 하면서 언젠가 한국에 가서 더 직접적인 "한일교류"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연결하는 한일교류

岩崎 弘子 (神奈川県)

13 년 전까지 외국과 인연이 없었던 저희 가족에게 한국인 한 분이 운명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한일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친구와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아직 어린 세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원봉사로 유학생들도 받아서 한국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없었던 저였지만 요리책을 보고 만들어 왔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라 SNS 를 통해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교류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3 년 전부터 SNS 를 이용하여 요리를 메인으로 많은 한국 분들과 현재 교류 중입니다. 제가 단지 일본어로 "오늘의 도시락입니다" "오늘의 집밥입니다" 라고만 올렸다면 이런 교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직 한국어가 많이 부족하여 부끄럽지만 매일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쉬지 않고 일본의 문화, 교육, 가족, 음식들의 관한 글을 올려왔습니다. 일본어를 못하시는 한국분들에게 댓글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일본에 몇 번 가봤고 일본 음식도 좋아하지만...일본인의 대한 생각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Hiro 씨의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도 자주 남겨주십니다.

한국과 교류를 시작했을 즈음에는 아직 초등학교 1 학년이었던 큰딸도 올해 4 월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엄마를 통해서 들었던 한국어, 한국문화를 본인이 직접 공부하고 싶다고 조선시대와 근현대시대를 통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배울수있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전문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이제까지 접하지않았던 여러가지를 알아야 되서 가끔 마음이 아픈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표현이 너무 좋아서 마음이 따뜻해 진답니다.

십 년을 넘게 유학생들과 교류하다 보면 일본에 취직하고 싶어하는 유학생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취직의 관한 조언을 해주고 덧붙여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일본을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문화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예전에는 언어를 통하지 않아도 교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가 통함으로써 조금 더 자세한 문화를 알게 되고, 또한 이해하려는 마음자세야말로 더 좋은 교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가을, 저는 제주도 에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한국 음식을 통해 인연을 맺은 네 분과 함께요. 이 나이가 되어 한국말을 못했다면 이런 날이 왔을까요?